

협회행사 보고 ② ; 세계 책의 날 기념 :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우리 협회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발표는 육근해 한국도서관협회 특수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이 맡았다.

육근해 위원장은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공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독서장애인들에게 “알권리”, “읽을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독서장애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나라들은 법률상 분류에서나 도서관 봉사를 위한 분류에서 시각장애인 외에 봉사대상으로 또 다른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용어로 흔히 “독서장애인”하면 한번도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을 독서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신체적인 불리한 장애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관계없이 “독서장애인”으로 노인, 문자해독장애인, 지체장애인, 환자, 시각장애인 등으로 함축시키고, 그 외에도 학습장애, 지적장애 등 본인이 독서장애라고 느끼는 사람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사명에서 장애인, 노인을 빼놓을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아주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그와 같은 사례로는, 첫째, 우리 현행 법에 장애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열람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도서관들은 시설 변경이 곤란하거나 다른 열람실 운영 등에 따라 공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경

우가 많고, 둘째, 그 대상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이 내관을 하지 않으므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해서 폐지해 버린 경우, 셋째, 관외대출로 우편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여 꺼리는 경우, 넷째, 한 시나 군에서 여러 도서관 중 한 개소의 도서관만을 특화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섯째, 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육 위원장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독서에 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현재 많은 도서관들이 별도의 열람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열람실을 설치할 경우 장서관리와 이용자 관리에서 용이하고, 이용자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시설 이용에 편리를 주는 점도 있겠지만, 일정한 규모의 시설로 한정할 경우 자료가 증가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을 때는 직원이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으며, “장애인열람실”이라는 표기를 꺼려 장애인 본인도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담당사서는 이용자를 대할 때 동정하는 태도나 고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항상 친절하고 성심껏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의 유형에 맞는 자세를 갖추고, 장애 유형의 특성을 잘 알고 응대해야 하며, 기본적인 점자와 수화 정도는 배워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참고봉사나 대면낭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봉사가 가능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독서장애에 대응한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료의 유형은 크게 녹음도서,

큰 활자도서, 점자도서, 전자도서, 입체도서, 자막·수화삽입비디오가 있다. 녹음도서의 경우는 읽는 도서가 아니라 듣는 도서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독서장애인들의 이용 매체 중 가장 유용하고 보편적이다. 대활자도서는 보통의 문자 크기보다 큰 문자로 제작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크기의 활자로 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외에도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시점을 고정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거나 큰 글자가 친숙해지기 쉽다는 사람 등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대활자도서는 제작에 있어서 활자의 크기, 종이의 불투명성과 조직, 사용되는 잉크의 색깔과 종이색깔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점자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기록하여 만든 도서로서 점자의 형태는 요철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말한다. 점자도서는 점자판, 점자타자기, 제판기, 점자프린트기 등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점자프린트기를 사용하여 제작된 점자도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도서는 '디스크도서'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음성합성장치'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텍스트로 입력된 도서를 음성으로 듣는 도서를 말한다. 입체도서는 문헌을 전달하는 것 외에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아용 교재, 또는 지도나 도감 등 그림과 같은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입체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점자를 응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자막·수화 삽입 비디오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혹은 수화를 삽입한 비디오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액션, 배경, 바디랭귀지, 그래픽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는 음성화면해설서비스가 삽입된 비디오를 말한다.

넷째, 독서장애를 고려한 봉사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알리고,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외 대출을 하는데, 우편대출이나 택배대출도 가능해야 한다. 자료에 정통하고, 이용자의 흥미나 관심을 정확히 판단하여 자료를 소개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이 대면낭독 봉사를 맡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꾸준히 교육하고 양성하여 그 지역의 장애인 이용자에게 관외 대출과, 대면낭독, 참고봉사 등을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의 20%에 가까운 독서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봉사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도서관이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 유형에 있어서는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료나 봉사내용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그 지역의 특수도서관이 서로 연계하여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를 이용함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담당사서에 대해서는 장애인 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을 안 가는 것과 도서관에 가도 읽을 자료가 없다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모든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으로서, 설립기관이나 소속원과 공중에게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해야 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장애인 봉사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며, 장애인은 복지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